

【4 년간을 돌아보며】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2005 년 10 월에 오카야마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벌써 3 년 8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가지의 활성화와 육아 환경의 정비, 교육 문제, 산업 진흥, 건강 복지 등 다양한 정책 과제에 전력으로 임해 온 결과, 일정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어 "오카야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기뻐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 내의 기업 경영자와 지식인을 대상으로 산요 신문사가 실시한 설문에서 약 65%의 사람이 "시정이 전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도 나타나 있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대기 아동 문제와 교육 문제, 교통 네트워크의 문제를 비롯해 오카야마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어 계속해서 꾸준히 시정을 전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저는 30 대 초반에 읽은 시바 료타로의 『유채 꽃의 바다』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만, 에도시대에 키타마에 부네(에도시대부터 명치시대를 걸쳐 활약한 운송선의 명칭)에서 활약한 타카타야 카해에는 정의, 정직, 양심, 인내를 취지로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분이 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이러한 신념의 중요성은 정치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해, 4 년전 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요즘은 여론을 포함한 몇몇 분으로부터 “시장은 성실하고

정직하네요"라는 말씀을 듣는 일이 많아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카해에의 신념을 좌우명으로 꾸준히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카야마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 오늘 시의회에서 차기 시장 선거 출마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신전령으로 시정에 매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